

김민환의 세상읽기



정치는 ‘정치적’이라야 한다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잡담이었다. 그러나 Barack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인종차별의 장벽을 깨고 대통령 이룬 데는 오바마 캠프의 특별한 미디어 전략이 한 몫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오바마 캠프는 당시 미국 인구의 55%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예비선거 과정부터 이들 사이트를 적극 공략했다. 2007년 2월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식 웹사이트인 BarakObama.com을 개설했다.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킹 사이트인 My.BarakObama.com(MyBO)도 만들었다. 그해 8월에 이미 페이스북에서 1만2200명의 친구를, 마이스페이스에서 15만8000명의 친구를 만들었다. 오바마의 SNS 친구 수는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 모든 주자가 만든 네트워크 친구 수보다 2배 이상이었다.

오바마 캠프는 사이트에 가입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직화에 몰두했다.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컨퍼런스도 열었다.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유도하면서 자율적인

연대활동을 촉구하고 지원했다. 대선 기간에 활동한 300만 명의 자원봉사자 대부분을 SNS를 통해 모집했다.

또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타겟팅(microtargeting) 캠페인을 벌였다. 오바마 캠프는 MyBO를 비롯한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SNS 사이트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그들이 연계할 수 많은 이들에게 대한 인구학적 정보를 토대로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보냈다. 이라크를 때릴 때 원거리에서 이른바 외과적 공격(surgery attack)으로 축적처럼 목표지점을 타격한 미군의 군사전략을 원용한 셈이었다.

오바마의 미디어 전략은 특히 청년층에 탁월한 효과를 냈다. 오바마는 대선에서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청년 유권자의 표 66%를 끌어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 지경이었다. SNS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바마 캠프가 전통적인 미디어, 이를테면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당 공식 조직

을 통해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 대한 활동 역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다우너적인 미디어 전략은 오바마 캠프에 초유의 유색인 대통령이라는 기적을 안겼다.

SNS나 인터넷의 위력은 사실은 2002년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치적 소가지 곁들여가며 노무현 후보는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었다.

노무현 캠프의 미디어 전략은 과거 그 자체였다. 노 캠프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메이저 신문을 이른바 조종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적대적 공세를 취했다. 이진 종래의 미디어 전략으로 보면 일종의 자살행위였다. 그러나 노 캠프는 비주류 미디어를 등에 업고 합점지만 그래서 더욱 짜릿한 성공의 촉매를 들었다.

노무현 캠프의 선택적인 부정적 미디어 전략이 효과를 본 것은 여론의 극단적인 양극화 때문이었다. 중간층이 거의 없어 유권자가 대쪽같이 같은 상황에서 주류 미디어를 적대적으로 몰아붙인 전략은 결과적으로 우호적인 유권자를 응집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분열의 시대에 분열의 전략이 주요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좀 민망할 정도로 광주 유권자가 팔팔 뭉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지난 대선은 기본 상황이 2002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안철수 신드롬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은 좌우의 극심한 대립에 염증을 느끼며 사회통합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는 2002년에 승리를 안긴 미디어 전략을 고수했다. 문 캠프는 주류 미디어를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종편 방송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주류 신문사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인사를 방문하는 오랜 관행이 깨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쓰라림은 곧 문재인 후보의 쓰라림으로 이어졌다.

대선에서 참패했는데도 아직 야권은 주류 미디어에 적대적이다. 주류 미디어가 여전히 정치적 편향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그런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주류 미디어가 정파적이라 해서 주류 미디어를 외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합당한 일일까? 삶어도 삶은 척 하지 않는 태도를 흔히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모를지기 정치를 하려면 우선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대대 명예교수>

社說

광주·전남 학교폭력 2300명이 넘는다니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무려 2334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체 학생 48만6311명 가운데 208명당 1명(0.48%)꼴로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구(0.60%)·강원(0.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게다가 광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가해학생이 88명당 1명이나 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이 50%를 넘고, 금품 갈취와 강제 심부름, 따돌림, 모욕 등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60명이 피학을 당했고, 162명이 강제로 전학 조치됐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게 단적인 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배치하고, CC-TV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학교 내 상담을 꺼리고,

CC-TV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폭력 유형이 모욕과 따돌림 등으로 지능화되면서 ‘간접폭력’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117 센터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다.

광주시내 일선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하더라도 학교당 평균 22.9시간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다. 전남은 11.3시간에 그쳐 충북(10.2시간) 다음으로 낮았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함께 교사, 학부모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17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내실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 건물식 주차장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광주지역 종합병원을 비롯한 빌딩의 ‘건물식(2층 이상) 주차장’ 상당수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법규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데다 감독 관청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상 건물식 주차장은 높이 60cm 이상, 너비 160cm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2차차량이 속도 2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 시내 건물식 주차장은 안전시설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들 주차장은 모두 52곳으로, 이 가운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4곳이나 된다. 구별로는 동구·남구가 각 6곳의 주차장이 있으나 안전시설이 전무한 것을 비롯 광산구 17곳 중 13곳, 북구 7곳 중 4곳, 서구 16곳 중 5곳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이라도 얇

은 외벽을 두껍게 보이기 위해 알루미늄 구조물을 덧대는 등 실제 기준을 어기기 일쑤여서 사고시 위험이 높다. 이는 고층에서 온전미숙으로 외벽에 충돌할 경우 곧바로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인명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각 구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이후 6차례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지만 구청은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건물주의 시급한 인식 전환과 각 구청의 엄격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종교칼럼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 교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

다. 일 더하기 일은 귀요미를 해도 징그러질 않다. 아침 햇살 같은 풋풋함이 묻어나는 학생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는다. 새내기들과 재학생이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 건물 이름을 정식으로 말한다의 점이다. 예를 들면 재학생들이 ‘말미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새내기들은 ‘벌티미디어실’이라고 한다.

수업에 들어가 만나는 신입생들에게 첫마디로 이런 말을 던지곤 한다. “왜 유아교육과에 왔어?” “왜 간호학과에 왔어?” 아이들은 대개 “아이들이 좋아서요.”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요.”라고 답한다. 그럼 나는 다시 노래방을 좋아하느냐고 묻고 새내기들 중 일부는 “예, 좋아해요!”라고 답한다. 필자가 “그럼 가수 되어야겠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왜요?”라며 의아해 한다.

노래를 좋아한다고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수는 노래를 남보다 잘 불러야 한다. 유아교사도 단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를 잘 가르치고, 잘 알고, 유아로부터 존경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퀴 생각해보자. 만일 내가 유치원 원장인데 왜 유아

교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가 좋아서요”라고 답한다면, 그 교사를 우리 유치원에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리고 유아교사로 서 갖추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와 학과를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다. 신입생들은 지난 12년간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쉽게 방향하게 되고, 새 학년 새 학기에 잠깐 설레는 마음으로 결심과 다짐을 할 뿐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결심과 다짐이 꾸준히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멀어 이내 지쳐버리고 견디지 못하는 탓이다.

물이 끓는 최고 정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라면을 끓이는데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물이 끓는 시간이 달라진다. 그냥 면에 스프란 넣는다면 가장 빨리 끓는다. 하지만 라면에 이런저런 양념을 넣는다면 라면이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는 라면을 먹

는데도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즐겁게 기다린다. 왜냐하면 면과 스프란 넣는 것보다 맛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끓일 맛있는 라면을 그려보는 것이다. 내가 끓일 라면을 정한 후의 대학생활은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 여러 가지를 즐겁게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졸업할 즈음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그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할 것 같아서 선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어야 한다.

홍해바다를 건너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처음 행한 것은 파스가 축제였다. 이 축제는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기대였다. 그들은 이내 지치고 가뭄은 무서워 버리지만 모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달래가며 광야를 40년이나 헤맸다. 히브리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늘 가난한 땅을 밟는 그날을 꿈꾸고 즐거움 준비를 했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많은 새내기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기고



김용익 대한결핵협회 호남지회장·동신대 대학원장

24일은 ‘결핵예방의 날’...결핵검진으로 ‘힐링’하세요

있는 소녀시대 멤버가 여자주인공(윤아)으로 출연해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결국 피가 섞인 기침, 즉 ‘객혈’을 하면서 심한 결핵관정을 받았었다. 물론 1970년대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2013년,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2012년 세계경제포럼과 IMF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44개 국가 중 19위이고, 세계무역과 수출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대국이다.

경제 지표로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결핵과 같은 후진국병은 아마도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의 예측과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OECD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다제내성 환자 수

등 4대 결핵역학 지표가 ‘1위’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신고된 결핵환자만 5만명, 사망자는 2300명이 넘었으니 가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1차 항결핵제가 거의 듣지 않는 ‘슈퍼결핵’, 즉 광범위 다제내성 결핵(Extensively drug-resistant TB, XDR-TB)환자의 증가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소집단 결핵발생이 증가추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건당국과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보건소 중심으로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장애 따른 환경 개선과 전 국민의료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결핵환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환자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정부는 2011년에 ‘결핵초치되지 NEW-2020플랜’을 수립하고 결핵퇴치 원년

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발견 사업 및 민간공공협력 사업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전염성 난치 결핵환자의 강제입원조치 등 결핵의 감염 및 발병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결핵퇴치 사업을 추진하며 결핵의 조기퇴치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가오는 24일은 ‘제3회 결핵예방의 날’이자 ‘제30회 세계결핵의 날’이다. 국민들에게 결핵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시민참여 행사 ‘결핵검진으로 힐링 힐링’을 실시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시작으로, 광주에서는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전남은 27일 여수에서 결핵검사 및 골밀도, 체지방 등을 검사하며 결핵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을 하는 현실.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즐겁게 살기 위해 하는 것과 생활고 때문에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삶의 질 자체는 자꾸만 추락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가난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게 정부와 여학 야인가. 서민들은 지금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독자 기고·투고 환영합니다

독자 기고와 투고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소득 높아져도 서민 삶의 질 갈수록 추락해서야...

요즘 남자들은 대놓고 ‘맞벌이 부부 하겠다’며 여성의 직장을 중요시한다. 이에 직장 없는 여성은 거들떠도 안보는 추세며, 안정적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인 신분감은 1등으로 쳐준다.

현모양처형 전업주부가 일등 신분감이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의 40~50대가 결혼했던,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그때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시집가는 게 어렵지 않았다. 취직을 하려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시집을 갔다. 이런

신부예엔 우스갯소리로 ‘취직’ 했다고 말할 수도 했다. 최소한 경제적 문제로 시집을 못가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현모양처는 이제 아득한 옛이야기일 뿐이다. 40~50대 엄마들에게 집안일과 자녀교육은 기본이고, 돈을 벌여오는 일은 선택권이 없는 옵션이 됐다. 나도 몇 년 전부터 마트 판매사업에도 일하고 있다. 그래도 편함은 중점사업에 다니던 남편은 몇 년 전 회사가 망하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어렵사

無 等 鼓

기원전 1200여년 전 벌어진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됐다. 전쟁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납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한데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공작이 있었다. 파리스는 일명 ‘파리스의 심판’을 통해 헤라, 아테네를 제치고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았는데, 아프로디테는 그 대가로 절세미인 헬레네를 아내로 맞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남녀의 사랑 놀음은 국가간의 전쟁으로 번져 스파르타는 미케네 등과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해 트로이 함락 작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리스군은 지략가인 오디세우스와 ‘불사의 돛’으로 유명한 행장 아킬레우스가 있음에도 10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0년 전쟁의 승부는 오디세우스가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트로이 목마’로 인해 결정났다. 그리스군이 철수하는 척 하면서 해변에 두고 간 목마를 트

로이 국민들이 성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트로이는 멸망하게 됐다.

버트 슈미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 씹크 전략’이란 저서에서 세상을 바꾸는 ‘큰 생각’의 사례로 트로이 목마를 들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 낸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전쟁을 일거에 끝낸 큰 생각이고 여기에 더해 목마를 만든 에페이우스, 적에게 가짜 선물을 준 첩자 시는, 그리고 용감한 병사들이 다져져 승리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방송·금융기관의 전선망을 마비시킨 혁신사의 주범이 트로이 목마로 밝혀졌다. 해커가 중국 IP로 심은 트로이 목마에 6개 기관 3만2000대의 PC와 서버가 다연되는 등 국내 주력 전략가인 오디세우스와 ‘불사의 돛’으로 유명한 행장 아킬레우스가 있음에도 10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0년 전쟁의 승부는 오디세우스가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트로이 목마’로 인해 결정났다. 그리스군이 철수하는 척 하면서 해변에 두고 간 목마를 트

트로이 목마

PC와 서버가 다연되는 등 국내 주력 전략가인 오디세우스와 ‘불사의 돛’으로 유명한 행장 아킬레우스가 있음에도 10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10년 전쟁의 승부는 오디세우스가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트로이 목마’로 인해 결정났다. 그리스군이 철수하는 척 하면서 해변에 두고 간 목마를 트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해부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